

선만 그어도 한지붕 두 가게 영업 가능

카페·빵집·식당 합친 '하이브리드형' 복합매장 허용 요건 완화 테이크아웃점 휴게음식점 가능·소상공인 행정절차 간소화

앞으로 소상공인이 카페와 빵집, 식당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 9건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허용 요건을 '임시칸막이·선 구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같은 영

업장에서 통합해 운영하려면 현재는 층으로 나누거나 벽으로 칸막이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된다. 이런 규제 완화로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영업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와 같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좌석만 없으면 휴게음식점과 업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없애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인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의약품 판매하려면 '안전상 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들여야 하는 재신고를 해야 했는데,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노래방에는 '미러볼'을 제외한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을 바꿔 12월부터는 청소년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또 전세버스 운전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12월 완화해 영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키즈카페'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한 주요 법안에 하도급법, 대리점법, 제조물책임법, 가맹사업법 등이 포함돼 오는 10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새로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계약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 부당한 거래거절을 막대한 투자금 손실 및 가맹점의 시장퇴출까지 야기하는 큰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열거한 2개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를 넘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서 향후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창업단계에서 과장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줄이며 '갑질'을 근절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나 피해구제 등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는 찬성측 입장과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이미 가맹사업법에 의거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상생' 관계가 아닌 '갑질' 관계라는 이분법적인 재단을 하고 있고 자칫 가맹본부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소송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을 가진 반대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찾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나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수령 조건을 갖췄지만 아직 수령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수령방법 안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거나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는 폐업, 퇴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낸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

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 계좌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창농불패’ 농식품 창업 예비스타 누구?

오늘 MBC 첫 방영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18 농식품 창업콘서트' 전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 '창농불패'가 매주 금요일 MBC를 통해 방송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수상팀에 상금 1억원과 대통령상을

비롯해 10개 결선 진출팀에게 총 1억7000만원이 수여된다.

결선 진출팀은 또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 자금과 창업 보육 기회, 농식품 벤처제품관 우선 입점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온비드 공매 광주·전남 관심 물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소재 단독주택
-소재지: 광주시 북구 운암동 415-27
-관리번호: 2018-03643-001
-면적: 대 148.5㎡ 건물 124.62㎡ 지시 29㎡
-감정가격: 금 1억 4291만 8940원
-최저입찰가격: 금 1억 4291만 9000원
-입찰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0월 2일
-내용: 본 건물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임동중주공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정비된 주택지대임.

※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입찰 가능(콜센터 1588-5321)

◆순천시 연향동 소재 아파트
-소재지: 순천시 연향동 1626-1 연향동호반리엔시티빌 101동 8층 802호
-관리번호: 2017-02183-165
-면적: 대(지분) 41.6478㎡ 건물 59.9191㎡
-감정가격: 금 1억 3900만원
-최저입찰가격: 금 1억 3900만원
-입찰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0월 2일
-내용: 본 건물은 순천시 순천읍산초교 북동측 인근 및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순천금당중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 건물로 주변에 공동주택, 다세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건설사들 아파트 공급 속도 조절

공공택지 확보 난항·미분양 리스크 우려 지난달 분양 40% ↓

광주지역 분양 물량이 지난달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조짐에도, 주택업계는 공동주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만4411호로, 작년 동기(2만3992호) 대비 3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도 비슷해 지난달 분양 물량은 264호로 1년 전(460호)에 비해 42.6% 줄어들었다. 수도권도 6039호로 작년보다 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주택업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 분위기에 속해 사업 속도를 조절하면서 1-8월 분양 물량도 516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6087호)에 비해 15.2% 감소했다.

주택업계 안팎에서는 공공택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타 지역으로 옮긴데 따른 분양 물량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체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 3737호로 작년 동월(5만1587호) 대비 4.2% 증가했다. 광주도 지난달 입주 물량은 1525호로 지난해 8월(853호)보다 78.8% 증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글로벌 완판왕

팔아야 귀국

9월 COMING SOON

못 팔면 귀국 못하는 거야?

우주 최초!!!
세계 홈쇼핑 리얼 판매 게임

이용진

신동

장도면

이득

지석진

제아

양세한